

울릉도 지역의 방언에 대한 실태 조사(어휘편 I)*

박 종 갑**

〈목 차〉

1. 들어가기
 -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2. 어휘적 특성의 실태 비교
 - 2.1 노년층 상호간의 비교
 - 2.2 노년층 언어와 원적지 및 육지 방언과의 비교
 - 2.2.1 북면 노인층의 경우
 - 2.2.2 서면 노인층의 경우
 - 2.3 노년층과 소년층의 비교
 - 2.4 소년층 상호간의 비교
 3. 마무리
- *** 방언 자료

1. 들어가기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본 연구는 현재 울릉도 지역에서 말해지고 있는 언어의 실태를 조사·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¹⁾ 울릉도는 조선조의 공도(空島) 정책으로 오랫동안 빈 섬으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부교수

*** 논문의 분량이 많아, 방언자료는 “울릉도 지역의 방언에 대한 실태 조사(어휘편Ⅱ)”라는 이름으로 다음 호에 실을 예정이다.

1) 필자는 줄고(1998)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울릉군 북면 천부리 지역의 어휘를 간략히 조사·정리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부분적으로 이 때의 자료와 분석 결과를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금희 양(대학원 석사과정, 연구보조

로 남아 있다가, 육지의 주민들이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지 대략 110년 남짓 된다고 한다. 이처럼 짧은 기간은 방언학적으로 볼 때 독자적인 방언권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없는 관계로, 울릉도 지역의 언어는 전통적인 지역 방언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대상으로 자리잡을 수 없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방언조사에서도 이 지역이 제외되어 있고, 그 동안의 연구 성과로 보면 천부리 지역에 대한 간략한 어휘 조사 보고서인 졸고(1998)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²⁾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서(島嶼) 지방이 있지만, 이들 지역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특히 해당 도서 지역으로의 이주 역사가 짧은 경우에는, 지역 방언학적 연구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울릉도나 덕적도 등과 같이 이주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거나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특징을 가진 도서 지방의 언어에 대하여 방언 상호간의 간접 작용 및 독자적인 방언 형성 과정상의 특성 등을 규명하는 연구 또한 국어 방언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현재 울릉도 지역에서 말해지고 있는 언어의 실상을 정확히 조사·연구하여 울릉도 지역 언어의 정체성을 구명(究明)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어휘론적 관점에서의 연구 내용만 집필된다. 따라서 울릉도 지역 언어의 실태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어휘적 분야에 한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의 자료 정리와 전산 입력 등 지극히 힘들고 까다로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 큰 수고를 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 2) 고려대학교 민족언어조사단(1973)의 이름으로 낸 보고서에 290개의 낱말에 대한 방언 형이 실려 있으나,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리고 『울릉군지』의 pp.362-370에는 ‘울릉군의 방언’이라 하여 446개의 낱말을 수록해 놓고 있으나, 지역이나 제보자, 조사 방법과 과정 등 조사된 자료에 대해 신빙성을 담보해 줄 만한 어떠한 기록도 없어, 학술적인 언급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울릉도는 주로 경북 지역 사람들이 이주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원도 및 경남 지역 출신의 이주민들도 있으며, 초기에는 호남 지역 사람들도 상당수 들어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울릉도 지역 언어 실태의 변천 과정을 추리해 보면, 이주 1세대는 자기들 출신지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터이므로 이주 초기에는 여러가지 지역 방언들이 말해지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방언 상호간의 혼화나 간섭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현상은 2세대 혹은 3세대로 내려가면서 더욱 분명한 어떤 경향성을 확보하게 되었을 것인데, 현재의 상태는, 그러한 경향성이 발전하여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의 언어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지역의 언어가 비록 동질적인 독자적 방언권은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세대가 바뀔수록 점차 일정한 방향으로 통합되어 가는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으며, 경북 지역의 말이 그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예비 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만나본 모든 주민들은 자신들의 말이 경북 사람들의 말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때의 ‘경북’이 구체적으로 경북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히 말하지 못하였다. 이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여간 자신들이 자주 드나드는 경북 지역, 예를 들면, 월성(경주), 영일(포항) 등지 사람들의 말과 비교해서 말하는 듯했는데, 본고 2.1에서 상세히 검토할 것이지만,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서 섬세한 언어 의식의 표출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육지의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서로 간에 특별한 언어적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통합이 이뤄져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각 지역의 언어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 육지의 어느 지역 출신자들의 언어가 방언 통합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지, 만일, 특정한 지역 출신의 언어가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

울릉도 지역의 이상과 같은 언어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울릉도의 각 마

과 연구 인력이 드는 일이어서, 본고에서는 두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울릉읍과 북면 그리고 서면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울릉읍은 상대적으로 외지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제외하고, 북면과 서면 두 지역을 주된 조사 지역으로 삼았다. 이 두 지역에 대한 언어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면, 울릉도 지역 언어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면과 서면에서는 각각 한 마을씩을 선택하여 조사에 임하였는데, 북면에서는 천부리를, 서면에서는 태하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삼았다. 천부리와 태하리를 조사 지점으로 선택한 것은 이 지역이 울릉도 안에서도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울릉도에는 아직까지 섬 일주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지 않았다. 그래서 천부리나 태하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험준한 산을 넘는 임시도로를 이용하거나, 저동에서 도선을 이용하여 섬목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산에 눈이 쌓이거나 어느 정도의 풍랑만 있어도 교통이 두절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육지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관계로 두 지역은 외부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덜 이뤄진 곳이고, 따라서 주민들의 언어적 동질성이 비교적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으리라고 보았다.³⁾

[2] 본 연구에서는 제보자를 선정할 때, 원적지가 경북인 경우와 경북 이외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울릉도 지역 언어는 경북 지역 방언이 방언 통합의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런 추정인데,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제보와 예비조사 등을 고려해 보면, 월성군(경주), 영일군(포항) 등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방언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월성 지역 출신으로 이주 2·3대에 해당되는 노년층 제보자를 찾으려 하였다.⁴⁾ 그리고

3)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영균(1983)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한교수(울산대학교)는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러 가지 귀중한 조언을 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4) 『울릉군지』에는 울릉군 주민들 대부분이 경상도와 강원도 출신이며, 특히 경주, 영일, 영덕(이상 경북), 삼척, 울진(이상 강원도, 개척 당시에는 울진도 강원도 소속이 있음) 등지에서 가장 많이 이주해 온 관계로, 방언도 이들 지역의 말이 혼합되어 형성되고 있는데, 특히 경주와 영일 지역의 방언이 많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p.362). 그런데, 본 연구의 예비조사 과정에서 울릉군청의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니, 주민들의 원적지별 통

경북 이외 지역 출신으로서 이주 2·3대 이후의 노년층 제보자로는 호남 지역 제보자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이주 초기에 호남 지역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다는 주민들의 제보 등을 고려하고, 경북 출신 제보자 말과의 비교 효과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육지의 특정 지역 출신이 울릉도로 이주해 들어와서 대를 이어 사는 동안 원래의 방언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추적·비교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이주 2·3대 또는 3·4대로 내려온 현재의 시점에서 원적지 방언⁵⁾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어느 정도 언어적 통합이 이뤄졌는지 등을 추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또 각 마을마다 소년층 제보자를 구하여 그들의 언어 실태를 조사한 다음, 노년층의 언어와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것은 울릉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언어 통합 과정의 실태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함이다. 노년층의 말은 상대적으로 더 충실하게 원적지 방언을 계승하거나 그것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층의 말은 상대적으로 덜 그러할 것이며, 표준어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본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울릉군 북면과 서면 두 지역에서 각각 하나의 마을을 택하여 조사지점으로 정한다.

둘째, 노년층과 소년층으로 구분하여 조사·비교한다.

셋째, 노년층은 선대 거주지가 경북지역(월성군)인 경우와 경북 이외 지역(호남지역)인 경우로 나누어 조사한다.

넷째, 두 지역 노년층의 말은 그들 상호간의 비교 뿐만 아니라, 각각 그들의 원적지(선대 거주지) 방언 및 육지의 기타 방언과 비교하는 작업을 한다.

다섯째, 각 지역마다 노년층의 말과 소년층의 말을 비교한다.

여섯째, 두 지역 소년층의 말을 상호 비교한다.

연구의 예비조사 과정에서 울릉군청의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니, 주민들의 원적지별 통계 자료는 작성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언급은 정확한 통계 작업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현재 주민들의 선대 거주지 방언, 즉, 이주 1세대들이 살던 육지의 특정 방언을 가리키는 뜻으로 쓴다. 앞으로는 마찬가지다.

찾아 어휘 조사를 하고, 원적지 방언과 경북 각 지역의 방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방언자료집』의 자료를 이용한다.

[4] 본 연구에서는, 천부리의 경우, 천부2리에서 노년층 제보자(오십대, 원적지: 전북 정읍)를 선정하였고, 천부1리에서 소년층 제보자를 선정하였다. 천부2리는 가구수가 적어 육칠십대의 주민 가운데서는 적절한 제보자를 구하지 못해, 오십대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소년층의 제보자를 천부2리에서 선정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태하리의 경우에는 노년층(육십대, 원적지: 경북 월성)과 소년층을 같은 마을(태하 1리)에서 구하였다. 소년층 제보자를 선정할 때는 그들의 원적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처음 연구 계획을 짤 때에는 소년층 제보자도 노년층 제보자와 원적지가 동일하며, 현지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선정하려고 하였다. 이주 1세대의 말과 그 이후 세대의 말을 올바르게 비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소년층의 원적지가 동일해야 가장 이상적인 조사가 되리라고 판단하였고,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자신의 모어에 대한 언어 능력이 완성되어 언어적 직관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에 가 본 결과 계획에 부합되는 소년층 제보자를 구하기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⁶⁾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북면 천부리의 경우

노년층 : 김복순(여, 53세, 농업, 북면 천부2리, 원적지 : 전북 정읍).

소년층 : 김현미(여, 19세, 학생(울릉중고 2년), 북면 천부리).

(B) 서면 태하리의 경우

노년층 : 이성우(남, 69세, 농업, 서면 태하1리, 원적지 : 경북 월성)

소년층 : 김윤희(여, 16세, 학생(태하중 3년), 서면 태하1리) : 주제보자

6) 울릉군에는 고등학교가 울릉종합고등학교 하나 뿐인데, 천부리에는 울릉중고 재학생이 김현미 양 하나 뿐이었고(같은 또래 몇 명은 육지로 유학갔다고 함), 태하리의 경우는 울릉중고에 다니는 남학생이 하나 있기는 한데, 날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는 바람에(방학이라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임시도로를 넘어 도동이 나 저동으로 가 친구들하고 논다고 함) 조사 기간 중 내내 얼굴도 한번 볼 수가 없었다. 태하리의 소년층 제보자를 중학생으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년층 : 김윤희(여, 16세, 학생(태하중 3년), 서면 태하1리) : 주제보자
 김대성(남, 16세, 학생(태하중 3년), 서면 태하1리) : 협조자
 안재승(남, 16세, 학생(태하중 3년), 서면 태하1리) : 협조자
 최지은(여, 16세, 학생(태하중 3년), 서면 태하1리) : 협조자
 김희진(여, 16세, 학생(태하중 3년), 서면 태하1리) : 협조자

천부리의 노년층 제보자 김복순씨는 증조부가 아들(조부)과 함께 전북 정읍에서 울릉도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증조부를 기준으로 하면 이주 4세대에 해당되는데, 울릉도 태생으로 따지면 2세대에 해당된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며, 출생지는 울릉군 북면 현포리로서, 같은 북면 안이다. 이 곳 주민들은 논농사는 전혀 짓지 않고, 천궁이란 약초를 재배하여 그런대로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계속된 연작으로 천궁의 소출이 줄고 값 싼 중국산이 들어와, 요즘은 주로 더덕을 재배하는데, 그 소득이 보잘 것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소년층 제보자 김현미 양은 그 고고조부(경남 울주군 언양 출신)께서 울릉도로 이주하였는데(이분의 선산이 울릉도에 있다고 함.) 고조부, 증조부, 아버지는 모두 울릉도 태생이다. 그리고 김 양의 고조모는 강원도 삼척 출신이고, 증조모, 조모 및 어머니는 모두 울릉도 태생이며 김현미의 외조부가 경남 밀양에서 울릉도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김현미의 경우는 울릉도 이주 6세대이면서 태생으로는 5세대에 해당된다. 김현미는 현재(1998년 1월) 울릉종합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태하리의 노년층 제보자 이성우씨는 조부 되는 분이 젊은 시절에 경북 월성에서 울릉도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조부를 기준으로 하면 이주 3세대에 해당되는데, 울릉도 태생으로 따지면 2세대에 해당된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며, 출생지는 동일한 서면 사동인데 해방 직후(16세 때) 이 곳 태하리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밭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물과 약초를 캐어 그런대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소년층 제보자 김윤희 양은 태하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아버지는 태하 출생이고 어머니는 서면 남양리(이전에는 북면 소속이었음) 출생이다. 부모가 태하1리에서 '명제상회'라는 조그만 생필품 가게를 하고 있고 농사도 조금 지어, 보통의 생활을 하는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라고 있는 소녀라는 느낌이 들었다.

[5] 조사 항목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방언조사질문지』의 어휘편에 실려 있는 주항목과 부수항목 전부와 일부의 보충항목을 선택하여 확정했다. 현장 조사는 4차에 걸친 방문조사로 실행하였고, 통신(전화 및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방문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예비 조사 : 1998년 1월 07일(수) - 1998년 1월 09일(금)

본 조사(1) : 1998년 1월 13일(화) - 1998년 1월 17일(토)

본 조사(2) : 1998년 2월 20일(금) - 1998년 2월 26일(목)

확인 조사 : 1998년 4월 23일(목) - 1998년 4월 26일(일)

2. 어휘적 특성의 실태 비교

2.1 노년층 상호간의 비교

[1] 두 제보자의 어휘를 비교하여, 어원이 완전히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⁷⁾ (<표준어 : 천부리 노년층 : 태하리 노년층>의 순서로 자료를 제시한다⁸⁾).

(005-1) 애벌매다 : 한불매다 : 아시논매다 (015) 씨레 : 새스랑 : 씨리

(021) 삼 : 삼 : 수굼포 (030) 노끈 : 쟁까리 : 노

(045) 겨 : 재/나락재 : 덩개 (045-1) 왕겨 : 나락찹질 : 써등개

(045-2) 등겨 : 나락덩개 : 당덩개 (050-2) 발두둑 : 골두들 : 망

(050-3) 발고랑 : (발)골 : 골또랑 (050-4) 발이랑 : (발)골 : 망

(071-1) 오이소박이 : 외김치 : 오이짬지 (077) 이남박 : 싸람박 : 바가치

(101) 아궁이 : 부적 : 부직아구리 (103) 부지쟁이 : 불썰재이 : 부지쟁이

(104) 고무래 : 까꼬래이 : 불가래 (108) 부젓가락 : 불썰가락 : 불썰개

7) 논문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편에는 성조, 장단 등의 운율적 요소 및 비모음 표지가 표시되어 있어 여기서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정확한 음성 자료를 원하는 분은 부록의 자료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8)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와 동일한 순서로 자료를 제시하겠다.

- | | |
|-----------------------------|-------------------------|
| (104) 고무래 : 까꼬래이 : 불가래 | (108) 부젓가락 : 불째가락 : 불찌개 |
| (116) 냅다 : 맵다 : 딸따 | (121) 깨 : 개 : 농 |
| (146) 서까래 : 새까리 : 연목 | (147) 처마 : 연추 : 침마 |
| (162) 개울 : 골짜물 : 컨걸물, 걸물 | (163) 수렁 : 혁당물 : 복새 |
| (179) 대님 : 가불때이 : 다임 | (209) 주름살 : 주림살 : 쭈겨럭살 |
| (211) 눈두덩 : 눈뽀덜 : 눈꺼불 | (260) 언청이 : 켜보 : 헐치이 |
| (281) 마렵다 : 매렵다 : 누렵다 | (285) 포대기 : 포대기 : 두디기 |
| (286) 재룽(떨다) : 재룽떨다 : 꼬대긴다 | (302) 숭바꼭질 : 또또매 : 숭바꼬미 |
| (309) 그네 : 군대 : 거내 | (312) 팽이 : 팽이 : 팽배이 |
| (313) 열레 : 연동태 : 연자새 | (347) 대장간 : 대장간 : 팬수간 |
| (350) 바퀴 : 바꾸 : 발통 | (358) 자루 : 자리 : 가락 |
| (359) 두름 : 꾸미 : 가대기 | (405) 지느러미 : 날감지 : 지러미 |
| (431) 지렁이 : 끼꾸리/꺼깨이 : 지렁이 | (440) 하루살이 : 날파리 : 하루살이 |
| (443) 방아깨비 : 기아재비 : 형걸래비 | (456) 두염 : 거렴 : 막꺼불 |
| (459-1) 여물광 : 여물간 : 깍짜구리 | (465-5) 닭의 어리 : 둥지 : 부동 |
| (499) 덩굴 : 녕굴 : 덤폴 | (520) 자두 : 외추 : 자두 |
| (521) 호두 : 호두 : 추자 | (525) 뿌리 : 뿌래이 : 빨거지 |
| (529) 삭정이 : 마린가재이 : 죽대 | |
| (570) 회오리바람 : 회오리바람 : 호더랙바람 | |
| (593) 가볍다 : 해잡다 : 개잡다 | (605) 가렵다 : 지거렵따 : 건지렵따 |
| (623) 가깝다 : 개작따 : 가적따 | (636) 달라고 : 줄라꼬 : 달라꼬 |

[2] 두 제보자의 어휘를 비교하여, 서로 동일한 어원형이지만 현저한 형태적 차이가 드러나는 낱말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057-1) 무말랭이 : 무시오거락찌 : 무시오가리 | |
| (068-1) 불리다 : 뿌룬넌다 : 빨군넌다 | (085) 밀기울 : 밀찌불 : 밀찌개이 |
| (095) 그릇이 : 거러기 : 거럭시 | (111-1) 물부리 : 물쭈리 : 무쭈리 |
| (132) 흙손 : 혁칼 : 헐칼/헐손 | (136) 지붕에 : 자붕애 : 지붕개 |
| (194) 누애 : 니비 : 누애 | (218) 입술 : 입수부리 : 입서버리 |

- | | |
|------------------------------|------------------------|
| (317) 할머니 : 할매 : 할머이 | (318) 할아버지 : 할배 : 하라버지 |
| (319-2) 누나 : 누나야 : 누부야 | (326) 올캐 : 올키 : 월캐 |
| (335) 중부 : 자건아버지 : 저건아버지 | (338) 남 : 남 : 남 |
| (393) 하루 : 하리 : 하로 | (407) 창자 : 창자 : 창지 |
| (418) 가오리 : 가부리 : 가오리 | (426) 모기 : 모개이 : 모구 |
| (427) 파리 : 파래이 : 파리 | (449) 벌 : 벌 : 버리 |
| (458) 구유 : 구시 : 구이 | (465) 병아리 : 병아리 : 빼가리 |
| (471) 산돼지 : 산돼지 : 땀대지 | (474) 토끼 : 토끼이 : 토끼 |
| (527) 줄기 : 쫄개이 : 줄기 | (528) 가지 : 가재이 : 가지 |
| (543) 모래 : 물개 : 모래 | (578) 곁 : 곁 : 잔 |
| (578-1) 곁에 : 저태 : 자태 | (599) 물다 : 멀다 : 물따 |
| (602) 춥다 : 춥다 : 춥따 | (604) 시원하다 : 시원타 : 시원타 |
| (624) 두껍다 : 두껍따 : 두껍따 | (625) 엷다 : 얇다 : 열따 |
| (642) 좁는다 : 준넌다 : 존넌다 | |
| (643-2) 잊어버렸다 : 이자아뿐따 : 이저뿐따 | (649) 뺏는다 : 빠안다 : 빠징넌다 |

[3] 두 제보자의 어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도 있다. ‘닭’과 ‘흙’ 같은 ‘ㄹ’ 받침으로 끝난 경우, 천부리 제보자의 말에서는 ‘ㄱ’ 받침형과 ‘ㄴ’ 받침형이 함께 쓰이거나 ‘ㄱ’ 받침형만 쓰이는데 비해, 태하리 제보자의 말에서는 ‘ㄴ’ 받침형만 쓰인다. 다음이 그 자료다.

- | | |
|---|-----------------------|
| (465) 닭 : 달/닥 : 달, 닭이 : 다리/다기 : 다리, 닭을 : 다랏/다걸 : 다랏, 닭도 : 달
또/닥또 : 달또, 닭한테 : 달한테/닥한테 : 다란테 | |
| (465-1) 수닭 : 장딱 : 장딸, | (465-2) 암닭 : 암딱 : 암딸, |
| (465-4) 닭털 : 닥털 : 달털 | |
| (544) 흙 : 헐/헝 : 헐, 흙이 : 허리/허기 : 허리, 흙을 : 허랏/허걸 : 허랏, 흙에 : 허
래/허개 : 허래, 흙도 : 헐또/헝또 : 헐또 | |

[4] 어미 ‘-어/-아’, ‘-어야/-아야’, ‘-어라/-아라’, 과거시제 ‘-었-/-았-’ 등이 통
합된 경우에는 그 활용형에 ‘애(천부) : 이(태하)’의 대응과 같은 일정한 형태적

합된 경우에는 그 활용형에 ‘애(천부): 이(태하)’의 대응과 같은 일정한 형태적 차이가 발견된다. 다음이 그 예다.

(588-1) 높혀야: 노패야: 노피야	(601-1) 밝혀야: 발개야: 발키야
(626-1) 먹여라: 미개애라: 미기이라	(629-1) 끓여라: 결래라: 결리라
(631) 마셔라: 마새라: 마시라	(631) 마셨다: 마쌌따: 마신타
(645) 맡겨: 맨개: 막끼	(651) 매달리어: 달래애: 달리이
(663) 실려: 실래애: 실리이	(688) 괴어: 개패애: 개비이
(690-1) 움겼다: 움깁따: 움깁따	(697-1) 알리어: 알래애: 알리이
(702) 가르쳐: 가리채: 가리치	(703) 따라라: 따래라: 따리라
(708) 말려야: 말래야: 말리야	(710) 모셔야: 모새야: 모시야
(712) 후벼라: 히베라: 히비라	

[5] 이상과 같은 자료를 보면, 두 제보자의 어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차이가 어휘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방언이라고 해도 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하리 제보자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천부리 제보자가 쓰는 낱말을 제시하고, 혹시 이런 말을 쓰지 않느냐고 물어 보면, ‘들어 본 적도 없다’거나,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식으로 강하게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천부리 제보자의 낱말 중, 표준어 ‘쓰레’에 대한 ‘새서랑’, 표준어 ‘겨’에 대한 ‘나락계’, 그리고 표준어 ‘발두둑’에 대한 ‘꼴두들’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는 주민 스스로 울릉 주민 상호간에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부분이 있음을 느끼며 살아감을 알 수 있게 한다.

2.2 노년층 방언과 원적지 및 육지 방언과의 비교

2.2.1 북면 노인층의 경우

[1] 천부2리 지역은 개척 이래 주로 발농사를 지어 온 곳이다. 초기에는 논농

다. 이런 연유로 노년층 제보자는 논농사와 관련된 어휘들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잘 쓰지 않는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이 그 예다.

호미씻이(008), 벼(013), 번지(016), 벼훑이(025), 그네(025-1), 개상(026), 광주리(034), 방앗공이(041)

‘호미씻이’는 김매기를 마친 뒤 7월쯤 하루 날을 잡아서 일꾼들이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시며 노는 행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경북』⁹⁾에는 금릉, 성주, 경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이에 대응되는 방언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벼’은 쟁기의 보습(쟁기의 맨 밑에 붙어 있는 것으로, 땅을 파는 날)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쇠날인데, 보습이 관 흙덩이를 얹어 짓히게 하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제보자의 남편되는 분이 설명하기를, 밭을 갈 때에는 그냥 파기만 하면 되므로 보습만 필요할 뿐 벼는 불필요하다고 했다.¹⁰⁾ 『경북』에는 봉화, 안동, 영양, 영덕, 성주, 청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이에 대응되는 방언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번지’는 모를 심으려고, 씨래질을 하고 나서 판판하게 고르고 다듬는 데 쓰는, 널판대기를 댄 농기구이다. ‘벼훑이’와 ‘그네’는 벼를 탈곡하는 데 쓰는 간단한 도구인데, 둘 다 논농사와만 관련된 것이다. 제보자는 이들을 본 적도 들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북』에는 번지의 경우에는 금릉과 성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벼훑이의 경우에는 영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에 대응되는 방언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그네의 경우에는 영풍, 봉화 안동, 영양, 의성, 영덕, 선산, 군위, 영일, 성주, 칠곡, 경산 등 상당한 지역에서 해당 방언형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상’은 벼단이나 보릿단을 태질하려 곡식 알갱이를 털 때 받치는 나무토막인데, 『경북』에는 예천과 영덕을 제외한 전 지역에 해당

9) 『경북』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1989) 『한국방언자료집』 중 ‘경상북도편’을 가리킨다.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한다.

10) 제보자는 천부리 지역에서 밭을 갈 때 쓰이는 것은 쟁기(010)의 형태가 아니고 극쟁이(014, 방언형: 흙쟁이(정확한 음성형은 부록으로 제시한 방언자료를 보기 바람), 쟁기와 비슷하면서 벼이 없고 끝부분이 좀 무디게 생긴 농기구)의 형태라고 하고, 평소 때는 ‘쟁기’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고 했다.

털 때 받치는 나무토막인데, 『경북』에는 예천과 영덕을 제외한 전 지역에 해당 방언형이 실려 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광주리’의 경우에는 이와 꼭 같이 생긴 물건을 사용해 본 적은 없고,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고, 대용품으로 ‘소쿠리’를 쓴다고 했다. 『경북』에는 전 지역에 해당 방언형이 실려 있다. ‘방앗공이’는 디딜방아의 맨 끝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곡식을 내려 찡는 것인데, 『경북』에는 선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해당 방언형이 실려 있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면, 울릉도, 특히 천부리는 소수의 주민들이 외부 세계(육지)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쓰이지 않는 대상들과 관련된 언어와 문화들에 대해서는 계승하거나 새로 유입하는 데 장애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울릉도에 정착하면, 육지의 농촌 지역 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통하여 대중적인 도시 문화와 간접적이지만 늘 접촉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노년층 제보자의 원적지는 전라북도 정읍인데, 이주4세인 관계로 전북 방언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조사된 자료 중, 경북 지역의 방언형과 전혀 다른 낱말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새서랑(015 씨레), 속생이(035 바구니), 도구통(042 확), 총신(180 짚신), 조오레(180-1 미투리), 귀아지(207 뽕), 또또매(302 숨바꼭질), 연동태(313 얼레), 꾸미(359 두름), 실뽕(408 미꾸라지), 기아재비(443 방아깨비), 독술뱅이(484 패), 병치(538 벼랑),

‘씨레(015)’를 이 지역에서 <새서랑(쇠스랑)>이라고 하는데, 이는 『방언』¹¹⁾의 어디에도 보고되어 있지 않은 어형이다. <도구통>을 제외한 나머지 방언형 모두도 마찬가지다.

‘확(042)’에 대한 본 지역의 방언형은 도구통인데, 『방언』의 강원도, 경북 지역

11) 『방언』은 『한국방언자료집』의 경북편과 경북편, 전북편, 강원도편 등을 모두 가리킬 때는 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북 지역의 방언형이 <도구통> 또는 <두구통>이어서 원적지 방언의 잔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남의 전 지역도 이와 동일 어원형을 쓰므로, 경남 지역 출신 이주민들의 말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¹²⁾

울릉도 주민의 절대 다수가 원적지가 경북인 관계로, 전북(정읍)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 경우에는 원적지 방언이 거의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3] 노년층 제보자의 언어와 경북 각 지역의 언어를 비교해 보았다. 원적지 방언이 거의 소멸되는 가운데 그 자리를 육지의 어느 방언이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되었는지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울릉도 지역의 언어가 경북 지역의 언어와 거의 같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아울러 경북의 어느 지역 방언과 더 유사한지를 살펴 봄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방언 통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언을 개략적이거나 구체화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울릉도 언어에 어느 정도 통일성이 형성되어 간다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육지 방언이 어느 것인가하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문제다.

『한국방언조사질문지』에 실려 있는 어휘편에는 농사와 음식에 관한 어휘가 제일 먼저 배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이 지역에서 쓰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고, 처음(001)부터 차례대로 100개의 낱말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각 방언형을 경북의 각 지역 방언형과 비교하여, 그 형태적 동질성 여부와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동일한 형태의 방언형을 가진 경우만 헤아려 양의 과다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각 지역 옆의 숫자는 100개의 낱말 중 울릉도 지역 방언형과 해당 지역의 방언형이 동일한 형태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12) '절구(038)'에 대한 본 지역 방언형도 <도구통>인데, 경북 각 지역 방언형은 청송 지역의 방언형만 이와 같을 뿐 나머지 지역은 어원이 다른 낱말을 쓰고 있다.

울진: 35	예천: 36	영양: 37
영덕: 37	안동: 38	영풍: 38
금릉: 38	선산: 38	봉화: 39
성주: 41	문경: 42	칠곡: 42
상주: 43	고령: 43	달성: 43
의성: 44	영일: 46	군위: 47
청도: 47	영천: 53	청송: 57
경산: 58	월성: 58	

이상의 표를 보면, 울릉도 지역 언어가 전적으로 육지의 특정한 하나의 방언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월성, 경산, 영천 등 경북의 동남부 지역 언어와의 일치 정도가 다른 지역 방언의 경우보다 두드러진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된다. 지금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언의 통합 작용에 이들 지역의 방언이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 상대적으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판단된다.¹³⁾

2.2.2 서면 노인층의 경우

[1] 태하1리 지역은 예전에는 논농사도 상당히 지어왔으나 근래에는 거의 위축되고 주로 천궁이나 더덕, 기타 밭나물 재배 등의 밭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계절에 따라 오징어 잡이 같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전업적인 어부보다는 반농반어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이 지역 체보자인 이성우씨는 어업에 종사한 경험은 없고 젊은 시절에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아우르다가 지금은 밭농사만 지으며 계절에 따라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린다고 했

13) 영일(포항) 지역 방언의 수치가 낮고, 청송 지역 방언이 의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절구(038)’에 대한 본 지역 방언형이 <도구통>인데, 경북 각 지역 방언형 중, 청송 지역의 방언형만 이와 같다. <도군때>(039 절구공이)도 마찬가지다. 『울릉군지』에는 울릉군 주민들 대부분이 경상도와 강원도 출신이며, 특히 경주, 영일, 영덕, 삼척, 울진 등지에서 가장 많이 이주해 온 관계로, 방언도 이들 지역의 말이 혼합되어 형성되고 있는데, 특히 경주와 영일 지역의 방언이 많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p.362).

다. 그런 연유인지 69세라는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천부리 제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농사와 관련된 어휘들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잘 쓰지 않는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이 그 예다.¹⁴⁾

호미셋이(008), 벳(013), 번지(016), 벼훤이(025), 그네(025-1), 개상(026), 광주리(034), 방앗공이(041)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천부리 뿐만 아니라 태하리도 소수의 주민들이 외부 세계(육지)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살면서 그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 쓰이지 않는 대상들과 관련된 언어와 문화들에 대해서는 계승하거나 새로 유입하는 데 장애를 받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울릉도에 정착하면, 육지의 농촌 지역 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통하여 대중적인 도시 문화와 간접적이지만 늘 접촉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태하리의 노년층 제보자 이성우씨는 조부 되시는 분이 젊은 시절에 경북 월성에서 울릉도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조부를 기준으로 하면 이주 3세대에 해당 되는데, 울릉도 태생으로 따지면 2세대에 해당된다. 이 제보자의 말에는 원적지 방언인 ‘월성 방언’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와 같은 흔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 따져보기로 한다.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 2·3세대 정도의 시간을 함께 살아갈 때 원적지 방언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되는지를 개략적이거나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하리 노년층의 방언 자료와 월성 방언과의 비교 작업을 집중적으로 해 보았다. 여기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항목의 선정이 중요한데, 태하리 노년층의 방언 자료 중, 천부리 노년층의 방언 자료와 비교하여,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어휘 항목들을 고른 다음¹⁵⁾, 그것을 월성 방언과 비교해 보는

14) 아래 예는 천부리 제보자에 대해 언급한 데서 소개한 그대로인데, 이곳 제보자는 ‘호미셋이(008)’에 대해서는 ‘풍물치고 논다’라는 표현으로 답했다. 그러나 ‘호미셋이’라는 행사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15) 이와 같은 자료는 본고 2.1(노년층 상호간의 비교)에서 정리한 것을 그대로 이용한다.

방법을 취한다. 태하리 노년층의 말에는 월성 방언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는 반면에 천부리 노년층의 말은 그렇지 않아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두 노년층 제보자의 방언 자료 중에서 가능하면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i) 어원이 완전히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 (ii) 동일한 어원형이지만 현저한 형태적 차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iii) 문법적 부문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월성 방언의 자료는, 앞(1.2)에서 언급한 대로 『방언』의 『경북』을 이용한다.

[2-1] 먼저 (i) 두 노년층의 말에서 어원이 완전히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부터 검토해 보자. 여기에 속한 항목은 모두 54개이다.

첫째, 조사 항목 54개에 대한 태하리 노년층 제보자의 방언 자료 중, 월성 방언과 동일한 어원형으로서 형태가 완전히 같은 경우는 다음의 12개이다(<표준어 : 천부리 노년층 : 태하리 노년층>의 순서로 자료를 제시한다).

(021) 삽 : 삽 : 수곱포	(015) 씨레 : 새스랑 : 씨리
(030) 노끈 : 쨍까리 : 노	(045) 겨 : 재/나락재 : 덩개
(103) 부지깽이 : 불꼬재이 : 부지깽이	(147) 처마 : 연추 : 첨마
(179) 대님 : 가불때이 : 다임	(281) 마렵다 : 매렵다 : 누렵다
(309) 그네 : 군대 : 거내	(443) 방아깨비 : 기아재비 : 형걸래비
(499) 덩굴 : 녕쿨 : 덤풀	(593) 가법다 : 해잡다 : 개잡다

이와 같은 논의는 태하리 노년층의 말과 월성 방언 사이에 공통점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짐작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천부리 노년층의 말과 월성 방언 사이에는 이와 같은 공통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태하리 노년층의 말에 월성 방언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또는 태하리 노년층의 말이 월성 방언을 계승한 것이라면, 천부리 노년층의 말보다는 태하리 노년층의 말이 월성 방언과 더 많은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동일한 항목에 대한 천부리 노년층 제보자의 방언 자료 중, 월성 방언과 동일한 어원형으로서 형태가 완전히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 이 경우도 다

음과 같은 12개이다.¹⁶⁾

- | | |
|--------------------------|----------------------------|
| (050-3) 발고랑 : (발)골 : 골또랑 | (146) 서까래 : 새까리 : 연목 |
| (179) 대님 : 가불때이 : 다임 | (209) 주름살 : 주럼살 : 쭈거럭살 |
| (260) 언청이 : 췌보 : 혈치이 | (286) 재롱(떨다) : 재롱떨다 : 꼬대긴다 |
| (309) 그네 : 군대 : 거내 | (350) 바퀴 : 바꾸 : 발통 |
| (459-1) 여물광 : 여물간 : 깍짜구리 | (593) 가볍다 : 해갑다 : 개갑다 |
| (605) 가렵다 : 지거렵따 : 건지렵따 | (636) 달라고 : 줄라꼬 : 달라꼬 |

둘째, 동일한 조사 항목에 대한 태하리 노년층의 방언 자료 중, 월성 방언과 동일한 어원형이지만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는 다음의 7개이다(<표준어 : 태하리 노년층 : 월성 방언>의 순서로 자료를 제시한다).

- | | |
|--------------------------------------|--------------------------|
| (260) 언청이 : 혈치이 : 혈찌이 ¹⁷⁾ | (285) 포대기 : 두디기 : 뒤통기 |
| (302) 숨바꼭질 : 숨바꼬미 : 숨박꼬질 | (440) 하루살이 : 하루살이 : 하랍살이 |
| (525) 뿌리 : 뽕거지 : 뽕개이 | |
| (570) 회오리바람 : 호더랙바람 : 호더락빠람 | (623) 가갑다 : 가적따 : 가직따 |

동일한 조사 항목에 대한 천부리 노년층의 방언 자료에서도 월성 방언과 동일한 어원형이지만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가, 약간 적지만, 거의 비슷한 양으로 존재한다(5개)(<표준어 : 천부리 노년층 : 월성 방언>의 순서로 제시한다).¹⁸⁾

- | | |
|----------------------|-----------------------|
| (101) 아궁이 : 부적 : 부직 | (121) 퀘 : 개 : 기 |
| (312) 팽이 : 팽이 : 패이 | (347) 대장간 : 대장간 : 대정간 |
| (525) 뿌리 : 뿌래이 : 뽕개이 | |

16) '(179)대님, (309)그네, (593)가볍다'에 대한 월성 방언은 각각 '가불때이'와 '다임', '거내'와 '군대', 그리고 '개갑따'와 '해갑따' 등 두 가지씩이다.

17) 월성 방언을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비모음운 옛이음 'ㅇ'으로 표기한다.

18) (623) '가갑다(표준어):개작따(천부):가적따(태하)'와 같은 경우는 두 지역 세보자의 방언형 모두가 월성 방언형 '가적따'와 '어원이 같으나 형태적으로 조금 다른 유형'에 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태적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쪽으로 포함시켰다.

셋째, 동일한 조사 항목에 대한 태하리 노년층의 방언 자료 중, 월성 방언과 어원이 부분적으로 동일한 경우는 다음의 5개이다(<표준어 : 태하리 노년층 : 월성 방언>의 순서로 자료를 제시한다).

- | | |
|------------------------|------------------------|
| (045-1) 왕겨 : 씌등개 : 덩개 | (050-3) 밭고랑 : 골또랑 : 골 |
| (101) 아궁이 : 부직아구리 : 부직 | (162) 개울 : 끈걸물, 걸물 : 걸 |
| (313) 얼래 : 연자새 : 자세 | |

동일한 조사 항목에 대한 천부리 노년층의 방언 자료 중에서도, 월성 방언과 어원이 부분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거의 비슷한 양으로 있다(4개)(<표준어 : 천부리 노년층 : 월성 방언>의 순서로 자료를 제시한다).

- | | |
|--------------------------|----------------------------|
| (050-2) 밭두둑 : 골두둑 : 밭두들 | (071-1) 오이소박이 : 외김치 : 무뎌짐치 |
| (108) 부젓가락 : 불째까락 : 부절까락 | (405) 지느러미 : 날감지 : 날개 |

[2-2] (ii) 두 노년층의 말에서 동일한 어원형이지만 현저한 형태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속한 40개의 항목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40개의 조사 항목에 대한 천부리 노년층의 방언 자료와 태하리 노년층의 방언 자료를 각각 월성 방언과 비교해 본다.

첫째, 이 어휘 항목에 대한 두 노년층의 방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태하리 노년층의 말이 월성 방언과 형태가 같거나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20개)(<천부리 노년층 : 태하리 노년층 : 월성 방언>의 순서로 자료를 제시한다).

- | | |
|-------------------------|----------------------------|
| (132) 혁갈 : 혈갈/혈손 : 혈갈 | (218) 입수부리 : 입서버리 : 입서불 |
| (297) 샘 : 새 : 새 | (319-2) 누나야 : 누부야 : 누나/누부야 |
| (326) 올키 : 월개 : 월끼 | (426) 모개이 : 모구 : 모구 |
| (427) 파래이 : 파리 : 파리/파래이 | (449) 벌 : 버리 : 버리 |
| (458) 구시 : 구이 : 귀이 | (465) 병아리 : 빼가리 : 빼개이/뺑아리 |
| (527) 쫄개이 : 줄기 : 줄기 | (528) 가재이 : 가지 : 가지/가재이 |

- | | |
|-----------------------|-----------------------------|
| (543) 물개 : 모래 : 모래/물개 | (578) 절 : 잔 : 잔 |
| (578-1) 저태 : 자태 : 자태 | (602) 칩다 : 춤따 : 춤따 |
| (624) 두껍따 : 두껍따 : 두껍따 | (625) 알따 : 열따 : 열따 |
| (642) 준넌다 : 존넌다 : 존넌다 | (643-2) 이자아뿐따 : 이저뿐따 : 이저뿐따 |

둘째, 이 어휘 항목에 대한 두 노년층의 방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천부리 노년층의 말이 월성 방언과 형태가 같거나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8개)(〈천부리 노년층 : 태하리 노년층 : 월성 방언〉의 순서로 자료를 제시한다).

- | | |
|------------------------------------|-------------------------|
| (057-1) 무시오거락찌 : 무시오가리 : 오그래기/오그락찌 | |
| (068-1) 뿌룬넌다 : 뿌룬넌다 : 부룬는다/부루운다 | |
| (085) 밀찌불 : 밀찌개이 : 밀찌불 | (095) 거러기 : 거럭시 : 꺼러기 |
| (111-1) 물쭈리 : 무쭈리 : 물쭈리/물쭈리 | (194) 니비 : 누애 : 뉘애/뉘비 |
| (255) 버짐 : 버섯 : 버짐 | (317) 할매 : 할머이 : 할매 |
| (318) 할배 : 하라버지 : 할배 | |
| (335) 자건아버지 : 저건아버지 : 자근아부지 | (338) 남 : 념 : 나무 |
| (418) 가부리 : 가오리 : 가보리 | (427) 파래이 : 파리 : 파리/파래이 |
| (471) 산때지 : 맬때지 : 산때지/민때지 | (474) 토깨이 : 토끼 : 토깨이 |
| (528) 가재이 : 가지 : 가지/가재이 | (543) 물개 : 모래 : 모래/물개 |
| (604) 시원타 : 서원타 : 시원타 | |

[2-3] (iii)문법적 부문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곡용’과 ‘활용’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첫째, 앞(2.1)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두 제보자의 어휘를 비교해 보면, ‘얹’과 ‘흙’ 같은 ‘ㄹ’ 받침으로 끝난 경우, 천부리 제보자의 말에서는 ‘ㄱ’ 받침형과 ‘ㄹ’ 받침형이 함께 쓰이거나 ‘ㄱ’ 받침형만 쓰이는데 비해, 태하리 제보자의 말에서는 ‘ㄹ’ 받침형만 쓰인다. 다음 자료는 <표준어>천부리 노년층 : 태하리 노년층 : 월성 방언>의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방언>의 순서로 제시한다.

(626-1) 미개애라 : 미기이라 : 미기라/미개애라

(663) 실래애 : 실리이 : 실개애

(688) 개패애 : 개비이 : 개배애

(712) 히배라 : 히비라 : 히배라

[3] 이상으로 태하리 노년층의 말과 월성 방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아울러 천부리 노년층의 말도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월성 방언과 비교해 보는 작업을 하였다. 어휘 부문에서 보면, 두 제보자의 말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월성 방언과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어휘적 부문에서는, 태하리 노년층의 말과 월성 방언의 관계가, 천부리 노년층의 말과 월성 방언의 관계보다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어휘적 부문에서 보면, 태하리 노년층의 언어는 월성 방언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안에서 살아온 경북의 여러 타지역 출신들의 말과, 경북 이외 여러 지역의 말이 섞여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법 부문에서 보면, 두 제보자의 말 중, 태하리 노년층의 말이 상대적이지만 조금 더 월성 방언과 비슷했다.

2.3 노년층과 소년층의 비교

[1] 두 지역 노년층 말에서의 차이가 각각 그대로 두 지역 소년층 말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다. 다음이 그 예의 전부다(표준어 : [천부리 노년층 - 천부리 소년층] : [태하리 노년층 - 태하리 소년층]의 순서로 제시한다).

(255) 버짐 : [버짐 - 마른버짐] : [버선 - 마른버선]

(632) 붓어서 : [버어서 - 버어서] : [부어서 - 부어서]

(636) 달라고 : [줄라고 - 줄라꼬] : [달라꼬 - 달라고]

(642) 줍어라 : [좌아라 - 꺾아라] : [주서라 - 주서라]

(653-1) 쌓인다 : [싸인다 - 싸인다] : [싸이인다 - 싸이인다]

(689-1) 띄워라 : [피아라 - 띠아라] : [띠워라 - 띠워라]

그러나 이상의 자료는 전체 자료 중 극히 일부분이고, 언어적 환경이 동일한 다른 낱말에서는 이와 같은 대응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2] 소년층의 언어를 노년층과 비교해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이 노년층과 소년층의 언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단절감이다(표준어 어형과 노년층, 소년층 어형을 차례로 제시한다. 천부리 노년층과 태하리 노년층의 말이 다를 경우에는 태하리 노년층의 말을 괄호 () 속에 넣어 표기한다).

[2-1] 소년층의 언어에는 노년층 언어가 계승되지 않고 표준어 어형으로 대체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017) 호미 : 호매이 : 호미 | (018) 자루 : 자리 : 자루/짜루 |
| (046) 키 : 채이 : 키 | (065) 김치 : 잠치 : 김치 |
| (079) 주걱 : 주개 : 주걱 | (120) 서랍 : 빼다지 : 서랍 |
| (187) 가위 : 가시개 : 가위 | (199) 머리카락 : 멀꺼디이 : 머리카락 |

[2-2] 소년층 제보자는 중3, 고2의 여학생인데, 입사 준비 등의 이유로 노년층의 전통적인 문화에 동참하는 기회가 거의 없는 듯했다. 아예 공부만 시키고 하므로, 어른들의 농사나 각종 생활 노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없어 그것과 관련된 어휘의 습득이 부족하였다. 두 소년층 제보자 모두가 모른다고 대답한 어휘항목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005-1) 애벌매다 : 한불맨다(아시논맨다) : Ø
 (005-2) 두벌매다 : 두불맨다(두불논맨다) : Ø
 (011) 보습 : 훌찌이날(훌찌이날/훌쟁날) : Ø
 (014) 극쟁이 : 훌찌이 : Ø
 (050-2) 발두둑 : 골두둘(망) : Ø
 (132) 흙손 : 혁칼(혈칼, 혈손) : Ø

[2-3] 주변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바뀌어 그 지시대상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경우에도 두 제보자 모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이 그 예다.

(103) 부지깽이 : 불꼬재이(부지깨이) : ∅

(104) 고무래 : 까꼬래이(불가래) : ∅

(111-1) 물부리 : 물쭈리(무쭈기) : ∅

(111-2) 담배통 : 담배꼬바리 : ∅

(111-3) 담배설대 : 대(대설대,담배설대) : ∅

(140) 이영 : 영개 : ∅

(143) 용마름 : 용마름 : ∅

(160) 또아리 : 따배이 : ∅

(320-1) 아우본다 : 동생본다(동생난다) : ∅

(320-2) 아우타다 : 아시탄다 : ∅

[3] 앞(2.1)에서 두 노년층 제보자의 어휘를 비교하여, 차이의 유형별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차이가 소년층 제보자의 어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3-1] 두 노년층의 어휘에서, 서로 어원이 완전히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다른 54개 낱말 자료부터 검토한다.

첫째, 소년층 제보자 두 사람 모두 표준어 낱말형으로 답한 경우는 (021) 삼, (050-3) 밭고랑, (050-4) 밭이랑, (101) 아궁이, (147) 처마, (162) 개울, (179) 대님, (209) 주름살, (281) 마렵다, (286) 재룻(펄다), (302) 숨바꼭질, (309) 그네, (312) 팽이 (347) 대장간, (350) 바퀴, (358) 자루, (405) 지느러미, (431) 지렁이, (440) 하루살이, (443) 방아깨비, (499) 덩굴, (520) 자두, (521) 호두, (525) 뿌리, (570) 회오리바람, (593) 가볍다, (623) 가깝다 등 27개이다.

둘째, 소년층 제보자 모두가 그와 같은 낱말을 아예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는 (005-1) 애벌매다, (015)썩레, (045-1) 왕겨, (045-2) 등겨, (050-2) 발두둑, (103) 부지깽이, (104) 고무래, (108) 부젓가락, (146) 서까래, (459-1) 여물팡, (465-5) 닭의 어리, (529) 삭정이 등 12개이다.

셋째, 한쪽이 표준어형으로 답하고, 다른 한쪽은 방언형으로 답하거나 모른다고 한 경우는 (030) 노끈, (045) 겨, (163) 수령, (211) 눈두덩, (260) 언청이, (313) 열레, (359) 두름, (605) 가렵다, (121) 켜, (285) 포대기, (636) 달라고 등 11개이다.

넷째, 나머지 중, (071-1) ‘오이소박이’, (116) ‘냅다’는 노년층의 말과는 다르지

만, 하나의 동일한 방언형으로 답한 경우이고, (077) ‘이남박’은 노년층의 말과도 다르고, 소년층 서로간에도 다른 각각의 방언형으로 답한 경우이다. 그리고 (456) ‘두엄’은 천부리 제보자는 해당 지역 노년층과 같은 방언형인 ‘거름’으로 답했고, 태하리 소년층은 모른다고 답했다.

[3-2] 두 노년층의 어휘에서, 서로 동일한 어원형이지만 현저한 형태적 차이가 드러나는 낱말 자료 40개를 검토해 보자.

첫째, 소년층 제보자 두 사람 모두 표준어 낱말형으로 답한 경우는 40개 중, (335) 중부, (338) 남 : 남 : 남, (393) 하루 (407) 창자 : 창자 : 창지, (418) 가오리, (426) 모기, (427) 파리, (449) 벌 등 33개이다.

둘째, 소년층 제보자 모두가 그와 같은 낱말을 아예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는 (085) 밀기울, (111-1) 물부리, (132) 흙손 등 3개이다.

셋째, 나머지 4개의 낱말 중, (057-1) ‘무말랭이’, (068-1) ‘불리다’ 등은 제보자 둘 모두가 동일한 방언형을 답한 경우고, (255) ‘버짐’, (458) ‘구유’ 등은 제보자가 각각 다른 방언형으로 답한 경우이다.

[3-3] 용언 어간 뒤에 어미 ‘-어/-아’, ‘-어야/-아야’, ‘-어라/-아라’, 과거시제 ‘-었-/-았-’ 등이 통합된 경우에 그 활용형에 일정한 형태적 차이가 발견되는 낱말 자료 17개를 검토해 본다.

첫째, 총 17개의 낱말 자료 중, (631) ‘마셔라’와 (712) ‘후벼라’를 제외한 15개를 두 제보자 모두가 표준어형으로 답했다. 이는 노년층 제보자 두 사람의 어휘 자료에서 발견된 활용형에서의 일정한 형태적 차이가 소년층 어휘에 거의 대부분 계승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둘째, (631) ‘마셔라’에 대한 두 제보자의 어휘는 각각 ‘마셔라(천부리)’와 ‘마시라(태하리)’였다. 천부리 제보자는 표준어형을, 태하리 제보자는 같은 지역 노년층 제보자가 쓰는 방언형을 사용한 것이다. (712) ‘후벼라’에 대해서는 ‘후비라(천부리, 노년층 : 히배라)’와 ‘히벼라(태하리, 노년층 : 히비라)’로 답했다. 이는 모두 같은 지역 노년층의 방언형과는 약간의 형태적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이상으로, 앞(2.1)에서 두 노년층 제보자의 어휘를 비교하여 제시한 유형별 차이가 소년층의 말에 어느 정도 계승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노년층 제보자들 사이의 언어적 차이가 해당 지역 소년층 제보자의 언어 자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소년층 제보자들의 말에는 표준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층 언어에는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까지 표준어가 전통적인 방언형 어휘를 상당 부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¹⁹⁾

2.4 소년층 상호간의 비교

[1] 여기서는 소년층 제보자 두 사람의 어휘 자료를 비교해 본다(자료는 <표준어 : 천부리 소년층 : 태하리 소년층>의 순서로 제시한다).

[1-1] 두 제보자의 어휘 자료에는 두 사람이 어원이 다른 낱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이 조금 발견된다. 다음이 그 예다.

- | | |
|-------------------------|--------------------------|
| (030) 노끈 : 꼬나까리 : 노끈 | (039) 절구공이 : 절구 : 방아 |
| (046-1) 까분다 : 턴다 : 치고일따 | (077) 이남박 : 양지기 : 바가치 |
| (083) 흰떡 : 절편 : 흰떡 | (111) 담뱃대 : 곰팡대 : 담뱃대 |
| (117) 살강 : 선반 : 찬짱 | (289) 도리도리 : 도래도래 : 흔들흔들 |
| (299) 고누 : 사방치기 : 고누 | (313) 얼레 : 얼레 : 물레 |

[1-2] 한 사람은 해당 낱말에 대해 알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이 그 예인데, 중3인 태하리 제보자의 경우 모르는 낱말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 | | |
|---------------------|-----------------------|
| (037) 삼태기 : ∅ : 삼태기 | (040) 디딜방아 : 디딜방아 : ∅ |
| (047) 어레미 : 채 : ∅ | (049) 잠부기 : 잠부기 : ∅ |
| (062) 파씨 : ∅ : 파씨 | (096) 시루 : 시루 : ∅ |
| (125) 목침 : 목침 : ∅ | (126) 누비이불 : 니비이불 : ∅ |

19) 울릉도 사람들이 육지를 일컬을 때, 장·노년층들은 일관되게 ‘본토’라 하는데 비해 청·소년층들은 그냥 ‘육지’라고 함은 흥미롭다. 그리고 장·노년층들은 ‘울릉도’를 /울령도/라고 발음하고, 청·소년층들은 정확하게 /울릉도/라고 발음하는 차이가 있다.

(133) 귀알 : 솔 : 0

(145) 주춧돌 : 주춧돌 : 0

[1-3] 두 제보자가 부분적으로 다른 어원형이거나, 동일한 어원형이지만 형태적 차이가 나는 낱말을 쓰는 경우도 좀 있다. 다음이 그 예다.

(002) 미 : 쪽쟁이/쪽대기 : 쪽정어

(007) 결두리 : 새참 : 참

(053-1) 수수잎 : 수수입사기 : 수수입

(071-2) 오이지 : 오이짱아치 : 오이지

(159) 두레박 : 두래박 : 두루박

(168) 다듬이돌 : 다드마 : 다듬뿔

(168-1) 다듬이질 : 다드미질 : 다듬질

(223-1) 귀이개 : 귀후비개 : 기이개

(224-1) 귀먹다 : 기머겔따 : 기머덜따

(288) 곤지곤지 : 연지곤지 : 곤지곤지

『한국방언조사질문지(정신문화연구원 편)』에 등재된 대부분의 어휘 항목들이 그렇지만,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자료들은 대부분 각 낱말의 지시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문화가 현재의 일상 생활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경우다. 천부리 제보자인 김현미 양은 아버지가 울릉군 의회 의원이고, 어머니가 거주지에서 식육식당(천부리 소재, 일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생활 문화와 관련된 낱말에 대해서는 예상 밖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알고 있는 경우도 대부분 대중 매체(특히 텔레비전의 역사 및 농촌 드라마)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태하리 제보자인 김윤희 양은 부모가 조그만 생필품 가게(명제상회)를 운영하고, 농사도 조금 짓는데, 어린 나이(16세) 탓인지 앞의 김현미 양보다 더 심하였다. 소년층 제보자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생활 문화와 관련된 어휘 습득의 정도는 집안의 가족 구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천부리의 김현미 양을 면접할 때에,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들 중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사는 집 아이들은 ‘나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전통적인 생활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에 대해서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대부분의 소년층들은 우연한 기회에 특정한 낱말의 방언형을 들어서 알고 있거나, 대중 매체나 학교 교육을 통하여 표준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료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같은 지역 노년층의 말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어서, 개인적인 지식의 차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특히 중

3인 태하리 제보자의 어휘 습득 정도와 고2인 천부리 제보자의 어휘 습득 정도를 비교해 보면, 태하리 제보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소년층 제보자의 어휘 자료를 검토해 보면, 노년층 제보자 두 사람의 말에서는 차이가 없는 데도, 소년층 제보자의 말에서는 일정한 형태적 차이가 있는 약간의 곡용형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이 그 예다(표준어형 : 노년층²⁰) : [천부리 소년층 - 태하리 소년층]의 순서로 제시한다).

- (051) 팔을 : 파털 : [파츨 - 파슬, 파틀] 팔으로 : 파터로 : [파츠로 - 파스로]
 팔이 : 파치 : [파치 - 파시]
 (106) 솟이 : 수치 : [수치 - 수시] 솟에 : 수태 : [수태 - 수새]
 솟을 : 수털 : [수츨 - 수슬]
 (237) 젖을 : 저절(저털) : [저츨 - 절슬] 젖에 : 저채(저대) : [저채 - 절새]

이와 같은 자료는 두 소년층 제보자의 말에 문법적인 부분의 차이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는 동일한 낱말이라도 그 활용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 (475)(a) 덧이 : 더시 : [덜시 - 더시, 더치] (b) 덧을 : 더설 : [더츨 - 더츨]
 (c) 덧에 : 더새 : [더새 - 더채]
 (491)(a) 꽃을 : 꼬털 : [꼬츨 - 꼬츨] (b) 꽃에서 : 꼬태서 : [꼬새서 - 꼬채서]

위에서 제시한 두 유형의 자료를 보면, 제보자들이 개별 낱말에 따라 일정한 굴절형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방언형과 표준어형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이 경우 두 지역 노년층의 말은 대개 같다. 다른 경우에는 태하리 노년층의 말을 () 속에 넣었다.

[3] 이상으로 소년층 제보자 두 사람의 언어를 비교해 보았다. 어휘적 차원에서의 차이는 발견되나 문법적 부문의 차이는, 약간 관찰되기도 하지만, 확실한 언급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노년층 상호간의 차이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소년층 언어에서는, 기존의 경북 지방 중심의 노년층 언어의 바탕 위에서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언 통합 작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¹⁾

3. 마무리

본 연구는 울릉도 지역의 언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연구하여 그 정체성을 구명(究明)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울릉도 지역에 대해서는 방언학적인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본 연구는 울릉도 지역의 언어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일차적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주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거나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특징을 가진 도서 지방의 언어에 대하여 방언 상호간의 간섭 작용 및 독자적인 방언 형성 과정상의 특성 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지역의 언어가 비록 동질적인 독자적 방언권은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세대가 바뀔수록 점차 일정한 방향으로 통일되어 가는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으며, 경북 지역의 말이 그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각 지역의 언어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 육지의 어느 지역 출신자들의 언어가 방언 간섭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지, 만일, 특정한 지역 출신의 언어가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적지가 경북인 경우와 경북 이외인 경우로 구분하여 제보자를 선정하였다. 울릉도 지역 언어는 월성군(경주), 영일군(포항) 등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방언이 중심이 된 경북 방언이 방언 통합의 주도적 위치를 점

21) 본 연구는 어휘 부문에 한정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언급도 어휘 부문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다. 음운 및 문법 부문에 대한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지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월성 지역 출신으로 이주 2·3대에 해당되는 노년층 제보자와 호남 지역 출신 노년층 제보자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육지의 특정 지역 출신이 울릉도로 이주해 들어와서 대를 이어 사는 동안 원래의 방언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추적·비교해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 각 마을마다 소년층 제보자를 구하여 그들의 언어 실태를 조사한 다음, 노년층의 언어와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것은 울릉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언어 통합 과정의 실태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함이다. 노년층의 말은 상대적으로 더 충실하게 원적지 방언을 계승하거나 그것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나, 소년층의 말은 상대적으로 덜 그러할 것이며, 표준어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으리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이상과 같은 작업을 하여 얻게 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노년층 제보자의 어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어휘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방언이라고 해도 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적지가 호남 지역인 천부리의 노년층 제보자의 말에는, 울릉도 주민의 절대 다수가 원적지가 경북인 관계로, 전북 방언적 요소가 거의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천부리 노년층 제보자의 말이 경북의 어느 지역 방언과 더 유사한지를 살펴 봄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방언 통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언을 개략적이거나 구체화시켜 보고자 했다. 『한국방언조사질문지』 어휘편의 농사와 음식에 관한 어휘 중 처음(001)부터 차례대로 100개의 낱말을 대상으로 하여, 천부리 노년층의 말과 경북의 각 지역 방언 형과 비교한 결과, 월성, 경산, 영천 등 경북의 동남부 지역 방언과의 일치 정도가 다른 지역 방언의 경우보다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뤄져 온 방언 통합 작업에 이들 지역의 방언이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 상대적으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태하리의 노년층 제보자는 원적지가 경북 월성이어서, 월성 방언과의 공통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봄으로써,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 2·3세대 정도의 시간을 함께 살아갈 때 원적지 방언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되는지를 개략적

이나마 탐구해 보았다. 태하리 노년층의 말과 월성 방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아올리 천부리 노년층의 말도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월성 방언과 비교해 보는 작업을 하였다. 어휘 부문에서 보면, 두 제보자의 말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월성 방언과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적어도 어휘적 부문에서는, 태하리 노년층의 말과 월성 방언의 관계가, 천부리 노년층의 말과 월성 방언의 관계보다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어휘적 부문에서 보면, 태하리 노년층의 언어는 월성 방언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안에서 살아온 경북의 여러 타지역 출신들의 말과, 경북 이외 여러 지역의 말이 섞여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문법 부문에서 보면, 두 제보자의 말 중, 태하리 노년층의 말이 상대적이지만 조금 더 월성 방언과 비슷했다.

다섯째, 두 노년층 제보자의 어휘적 차이가 소년층의 말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노년층 제보자들 사이의 언어적 차이가 각각 그대로 해당 지역 소년층 제보자의 언어에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소년층 제보자들의 말에는 표준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소년층 제보자 두 사람의 언어를 비교해 보았는데, 어휘적 차원에서의 차이는 조금 발견되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법적 부문의 차이도, 약간 관찰되기도 하지만, 확실한 언급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노년층 상호간의 차이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소년층 언어에서는 기존의 경북 방언 중심의 노년층 언어가 바탕이 된 가운데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언 통합 작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곱째, 이상과 같은 조사·연구 작업을 통하여, 현재의 울릉도 지역의 언어적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울릉도 지역의 언어는 동질적 상태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원적지 방언들 및 표준어가 상호 방언 간섭 작용을 하는 과정에 놓여 있어, 지역과 개인에 따라 또는 노·소의 계층에 따라 공통점과 이질적인 모습이 혼재된 유동적 상태이다. (나) 울릉도 지역의 언어에는 경북 각 지역 방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경북 동남부 지역 방언과의 공통점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노년층 언어를 중심으로 보면, 울릉도 지역의 언어는 경북 동남부 지역

방언을 비롯한 경북 방언이 이외 지역 방언들을 흡수·통합하는 가운데 방언 간 접 작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ㄷ) 소년층 언어에는 표준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전통적인 방언형의 계승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노년층 언어에서 보이는 원적지별 또는 현재의 거주지별 언어적 차이는 거의 계승되지 않고 있다. (ㄹ) 소년층은 표준어를 일상적 생활어로 받아들임으로써, 소년층 언어에는 전통적인 방언형이 상당 부분 표준어로 대체되어 있고, 지역과 개인에 따른 언어적 차이도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ㄴ) 소년층 언어를 중심으로, 그리고 어휘적 부문으로 한정하여 보면, 울릉도 지역의 언어는, 기존의 경북 방언 중심의 노년층 언어가 바탕이 된 가운데,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언 통합 작용이 왕성히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속언어조사단(1973), 울릉도 언어 조사 보고, 『어문논집』 14·15, 고려대학교.
- 박종갑(1998), 울릉도 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 북면 천부리의 언어를 중심으로, 『울릉도·독도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심재기(1981), 『한국방언조사질문지』의 어휘편에 대하여, 『방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울릉군지 편찬위원회(1989), 『울릉군지』, 경상북도 울릉군청.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방언 연구』, 영남대 출판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한국방언자료집』 VIII(경상북도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방언자료집』 II(강원도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방언자료집』 VIII(경상남도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방언자료집』 V(전라북도편).
- 한영균(1984), 강원·경북·울릉·제주방언의 현지조사과정과 반성,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